

9월 돈가는 2,400~2,500원/kg으로 전망



최동수 부장
(제일제당(주) 식품본부 식육CM)

1. 8월 돈가

예년과 달리 8월 중순이후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돈육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예상돈가인 2,600원~2,700원/kg보다 낮은 2,500원/kg 수준에서 머물고 말았다. 8월 돈가는 2,700원/kg에서 2,600원/kg까지 형성되는 매우 불안한 가격대를 보였으며, 이는 국내 식육 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

그러나 상반기의 고 돈가로 인해 년 평균 돈가는 2,700원/kg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국내 돈가가 높은 상태이다.

2. 9월 돈가 전망

8월 돈가가 적정 수준까지 유지된 것은 더위로 인한 출하일정이 10일이상 지연된 것이 주 요인이었다.

9월 들어 급격한 소비 증가가 없다면 출하두수의 증가로 인해 돈가 하락이 불가피하고, 이미 수차에 걸쳐 언급한 등심, 후지의 용도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9월은 추석연휴 이후 출하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부위별 소비 구조가 변화하지 않아 돈가는 2,400원~2,500원/kg 수준으로 예상된다.

3. 최근의 육가공 현황

후지 재고 적체로 인해 원료돈 처리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판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.

등심, 후지의 생산량이 총부위 생산량의 50%를 차지하고 있어 2개 부위의 원활한 처리가 없는 한 원료돈 처리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. 현재의 상태가 배출구 없는 하수도가 연상된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제역 발

9월 들어 급격한 소비 증가가 없다면 줄어두수의 증가로 인해
 돈가 하락이 불가피하고, 이미 수사에 걸쳐 언급한 등심, 우지의 용도개발이 신속히
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 9월은 주석연유 이후 줄어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부위별 소비 구조가 변하지 않아
 돈가는 2,400 원~2,500원/kg 수준으로 예상된다.

생이후 2개 부위의 용도가 과거 수입산에서
 국내산으로 용도가 전이되면서 약간의 진전은
 보이나 완전한 부위별 소비형태(1두 생산부위
 의 완전판매)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
 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4. 수출이 필요한가?

2개부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필요하다.
 민간기업이 주도하든 정부가 주도하든지 금
 년중에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.
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가격차로 인
 해 수출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
 야 한다.

수출국도 러시아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.
 정부간 외교 채널을 통해 수출이 성사될 수
 있다면 육가공 업체나 양돈농가 모두에게 큰
 활력소가 될 것이다.

만약 수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말까지
 의 예상 시나리오는 11월 돈가 대폭락이다.

년중 출하량이 최대이고 소비가 감소하는
 11월에는 현재와 같은 체화 부위가 없는 가운
 데도 돈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
 었다. 현재는 체화가 될 것이 확실한 2개 부위
 가 있는 한 11월 돈가 폭락은 쉽게 예상할 수
 있다.

5. 단계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.

정부에서는 돈가 폭락을 대비하여 지금부터
 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.

과거 무계획적 비축구매에서 벗어나 돈가별
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
 립하여 9월까지의 국내 관계자에게 공표해야
 할 것이다.

수립된 정책에 의거 관계자는 맡은 분야에
 서 최선을 다할 때 지금의 난관을 무난히 극
 복할 수 있을 것이다.

6. 국제 돈육 현황

국제 돈가는 2년간의 저돈가에서 완전히 벗
 어나 정상돈가를 유지하고 있다.

그러나 부위별 국제시세는 돈가 상승폭만큼
 상승하지 않아 대규모 육가공 회사는 큰 손실
 을 보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대규모 육가공 회사
 는 부위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
 고, 부분적으로 부위별 부족 현상이 나타나 부
 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. 그리고 중국의
 WTO 가입으로 저가 부위와 부산물 수입이
 개시되면 부위육의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.
양돈